

전국 최대 '한우브랜드' 탄생

전남 서부 8개 축협 참여 '녹색 한우' 출범식 6월 출하...동부권 '지리산 한우' 이어 두번째



녹색한우 광역브랜드 사업단이 지난 18일 무안승달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이병철(참여농가 대표)·유영란(고향주부모임 전남도회장)·윤기호(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김종철(전남도의회 의장)·박준영(전남도지사)·남경우(농협중앙회 축산대표이사)·이덕수(농협전남지역 본부장)·나상욱(목포·무안·신안 축협조합장)씨.

최고기 생산을 위한 농가결의, 관련기 관들의 지원다짐이 이어졌다. 전남도와 농협관계자, 농가들은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격 한우를 생산, 전국 최고의 광역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동부지역의 지리산 순한우와 함께 전남의 한우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DDA·FTA등으로 촉발된 농촌·농가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직원 아이디어 제안 열기 포스코 광양제철 작년 3천여명 17만 건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앞다퉁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제안을 내놓아 자동차강판의 품질 개선과 제철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내 제안활동은 현장에서 발견되는 각종 낭비요소와 개선사항을 전 직원의 자발적인 제안을 통해 개선해 나가자는 것으로, 지난 한해만 3천여명의 직원이 총 17만 여건의 제안을 등록했다. 이는 2006년 제안건수에 비해 무려 10만 여건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광양제철소 직원 2명중 1명이 제안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이처럼 제안활동이 활발한 배경에는 24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학습 동아리', 현장의 낭비요인을 발굴하

"편의시설 확충 '고객감동' 제공 혁신도시·수완지구 사업 박차"

'사육 이전' 토공 한우서 광주전남본부장 한 본부장은 또 "토지 공사는 국토의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는 공익행위를 담당하는 만큼 지역민들에게 '헌신(Devotion)'과 '애정(Affection)'을 다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장애청소년들과 각종 재해시 자원봉사 활동, 광주 폐선부지 가꾸기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는 21일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서구 처평동의 신사옥에서 입주식을 갖고 '제2의 도약'을 다짐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재래시장 활성화 상품권 판매 고심 광주시

광주시가 설 대목을 앞두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재래시장 연합회와 함께 지난 2006년부터 재래시장 상품권 2종(1만 원권, 5천 원권)을 발행, 시장 은행과 재래시장 인근 새마을금고 및 신협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극심한 판매부진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5억원 어치의 상품권의 재고로 쌓이자 시는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할당하는 방식의 교육력을 마련하는 등 판매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설에 5억원 어치의 재고분 가운데 70~80%는 공무원들이 소비하는 한편 나머지는 지역 기업체와 시민단체 등에게 구입을 권유키로 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내 재래시장 25곳 중 14곳의 '등록 재래시장'에서만 상품권이 유통되도록 제한된 것도 판매 부진의 한 원인으로, 근본적으로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판매 활성화를 위해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재래시장 살리기 통한 차원에서 상품권을 많이 애용해 달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기아차 연예인 당구대회 개최 기아차는 지난 19일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국내영업본부 1층 전시장에서 김구라·이광기·김창렬·김경민·변기수·이기영·데프콘·정명훈 등 인기 연예인 8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1회 모하비베 연예인 당구대회'를 열었다. (기아차 제공)

전남 농협 인사 1~4급 46명 승진·전보

농협중앙회는 20일 농협광주·전남 지역본부 소속 1~4급 직원 46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20면> 이번 인사에서 김보영 담양군지부장이 2급에서 1급으로 승진, 구례농업교육원장에 임명됐다. 정종순 화순군지부장과 박삼중 광주 품양동 지점장도 1급으로 승진했다. 또 조영환 전남본부 동광주기업금융지점장 등 3명도 이상훈 광주본부 지도경영팀장 등 3명이 2급으로, 최성열 전남본부 교육지원부 차장 등 12명이 3급으로 승진했다. 이밖에 조성수 농협전남본부 경영검사부 부분부장 등 2급 7명, 박대수 목포 여산관리단장 등 3급 18명이 자리를 옮겼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전남도, 中企 1,100억 지원

전남도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1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올해 대불산단 입주 업체와 투자유치 기업에 최대 12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계획에 따르면, 도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160억원 ▲벤처기업 육성 200억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200억원 ▲경영안정 800억원 ▲소상공인 창업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업체당 연간 지원 한도액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경우 6억원, 벤처기업육성 자금 5억원, 경영안정자금 3억원, 소상공인 창업자금 1억원 등이다. 도는 또 특별지원 지역의 대불산단단지 입주 업체와 투자유치 기업에는 최대 12억원까지 지원을 줄 계획이다. /김주정기자 jines@

비수도권 창업 제조업 투자금액 10% 보조금

광주·전남중기청 내년까지 반시설 설치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5억원 이상 투자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임대공간의 경우 공장건축비가 소요되지 않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금액의 인정시점은 창업일 이후 공장등록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공장등록 의무가 아닌 500㎡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매출발생일까지 소요된 금액에 대해 산정한다. 보조금 지급 확정시 5인 이상 고용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신청은 온라인(http://changup-net.go.kr/)과 지자체로 하되 지방중기청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컨설팅 사업 등 창업관련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베이징 키오야

중국 특산물 전문점

북경 동요미구이

각종 단체 계모임 접수 (13명 분량)

972-5282

신축확장개원 일식요리의 명가

청하

대·소인회 / 상견례 / 각종 모임 및 집회 단체합영 / 주차장원비

223-7037 / 224-5002